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축소 경향 뚜렷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전체 투자규모 및 비중 면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4년에는 건수와 금액 면에서 각각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56.6%와 27.5%인 841건, 6억 3,210만 달러(총투자 기준)로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1990년대 중반 우리 기업들이 임금상승으로 국내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은 저임 노동력 외에 지리적인 인접성과 중국의 수출정책(兩頭在外)¹⁾이 맞물려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우리 기업의 건당 해외투자 규모가 200만 달러 수준인 데 비해 대중국 건당 투자규모는 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외환위기 상황에 놓였던 지난 3년 동안 국내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영향으로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비중은 크게 축소되었다. 지난해에는 금액기준 투자비중이 8.3%에 불과하였고, 건당 투자규모도 40만 달러로 전체 건당 투자규모 200만 달러를 크게 하회하였다.

중국시장에 대한 준비 부족이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이와 같이 대중국 투자의 규모 및 비중이 축소된 것은 다음 몇 가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상관습과 상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가 대부분이었다. 1994년 말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에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은 전체 생산제품의 72.3%를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였고, 27.7%만이 중국의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 당시 중국이 수출진흥을 위해 사용했던 전략이 兩頭在外, 大進大出로, 전자는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생산된 제품 시장이 모두 해외에 있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 수입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임.

4년 뒤인 199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수출비중이 64.3%로 8% 포인트 감소한 대신, 내수비중은 4%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이 점진적으로 내수시장을 개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설문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판매대금 미회수와 각종 준조세 부담으로 내수시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이 내수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우리 기업들, 특히 인력·정보·자금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상관습 및 상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 대중국 투자부진의 한 원인이 되었다.

<표 1>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중국 투자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전 체			중 국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평균 금액
1992	497	1,219.4	2.5	170	34.2	141.1	11.6	0.8
1993	682	1,261.6	1.8	378	55.4	264.0	20.9	0.7
1994	1,485	2,299.6	1.5	841	56.6	632.1	27.5	0.8
1995	1,309	3,071.8	2.3	740	56.5	823.5	26.8	1.1
1996	1,451	4,248.5	2.9	729	50.2	835.7	19.7	1.1
1997	1,299	3,229.6	2.5	623	47.9	633.2	19.6	1.0
1998	585	3,895.1	6.7	242	41.4	630.8	16.2	2.6
1999	1,029	2,549.7	2.5	431	41.9	308.1	12.1	0.7
2000	1,865	3,677.9	2.0	692	37.1	306.7	8.3	0.4
2001. 5	708	536.4	0.8	392	55.4	163.3	30.4	0.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둘째, 우리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형 투자의 이점을 상실하고 있다. 1994년 3월 중국은 '1990년대 산업정책 요강'을 발표하여, 산업구조의 적정화와 기계·전기전자·석유화학·자동차 등 기간산업 육성으로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중국은 1995년 6월 '외국인 투자방향의 지도에 관한 잠정규정'과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을 제정하였다. 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 양적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인해 야기됐던 경기과열, 산업구조 왜곡 심화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상기 두 규정은 산업·업종·품목별로 장려, 제한, 금지분야를 명시하여 외국인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코자 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 기업이 생산기지 이전형 투자를 목적으로 주로 진

출했던 의류 등 경공업 분야가 주로 제한분야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과의 경쟁, 중국정부의 투자규제 등은 우리 기업의 이전형 투자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은 첨단 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내수시장을 개방하는 소위 '기술과 시장의 교환' 전략을 통해, 첨단 기술산업 유치에 보다 적극적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투자 비교우위 산업지도 목록'을 제정하고, 이 지역으로의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제3국 시장 확보전략에만 주력한 결과, 변화된 중국의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넷째, 우리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먼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상관습과 상행위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금, 인력, 정보의 한계로 많은 기업들은 내수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다 중국을 중·저가품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국내에서 도태된 기술과 설비로 시장 개척에 나서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저가품의 공급과잉과 유사품이 난무하는 시장 무질서의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편중된 투자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투자에서 나타난 특징은 경직된 투자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 등의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2001년 5월말 현재 우리 기업의 對중국 투자는 48억 376만 달러로, 이 중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81.7%인 39억 2,749만 달러이고,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13.7%인 6억 6,008만 달러에 불과하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부동산, 음식·숙박, 도·소매 등이 31.9%, 28.7%, 20.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1997~2000년 기간 중 중국의 외국인 투자 실제 유입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대략 60% 안팎이고, 서비스업의 경우 30%를 상회하고 있다.

<표2> 대중국 지역별·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 업	'96현재	48	15.2	17	5.4	2	1.3	67	22.0
	'97	5	0.8	3	0.3	1	0.1	9	1.2
	'98	4	0.6	1	0.1	0	1.3	5	2.0
	'99	5	0.6	1	0.3	0	0.1	6	0.9
	'00	6	1.0	2	0.3	0	0.0	8	1.3
광 업	'96현재	9	5.7	8	2.6	0	0.0	17	8.3
	'97	2	0.5	1	0.0	0	0.0	3	0.5
	'98	0	0.0	0	0	0	0.0	0	0.0
	'99	2	1.4	1	2.1	0	0.0	3	3.5
	'00	2	0.3	2	0.2	0	0.0	4	0.5
제 조 업	'96현재	2,157	2,107.9	399	223.3	24	25.4	2,580	2,356.7
	'97	442	380.6	97	25.5	3	1.4	542	407.5
	'98	170	531.9	31	8.5	2	0.7	203	541.1
	'99	314	207.3	75	41.1	0	1.3	389	249.8
	'00	515	225.7	79	32.8	6	0.4	600	258.9
건 설 업	'96현재	21	81.1	9	10.5	0	0.0	30	91.5
	'97	4	39.3	0	0.0	0	0.0	4	39.3
	'98	1	15.7	0	0.0	0	0.0	1	15.7
	'99	2	12.1	0	0.0	0	0.0	2	12.1
	'00	1	16.2	1	0.1	0	0.0	2	16.3
서 비 스 업	'96현재	192	245.6	66	29.9	6	7.5	264	282.9
	'97	49	131.0	12	17.0	4	36.7	65	184.7
	'98	28	61.1	4	7.9	1	3.0	33	72.0
	'99	27	35.9	4	5.8	0	0.1	31	41.8
	'00	69	27.8	9	1.9	0	0.1	78	29.7
계	'96현재	2,427	2,455.5	499	271.7	32	34.2	2,958	2,761.4
	'97	502	552.2	113	42.8	8	38.2	623	633.2
	'98	203	609.3	36	16.5	3	5.0	242	630.8
	'99	350	257.3	81	49.3	0	1.5	431	308.1
	'00	593	271.0	93	35.3	6	0.4	692	306.7

주: 총투자 기준임

자료: <표 1>과 동일

다음으로, 투자가 동부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1999년 말 현재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동부, 중부, 서부 지역별²⁾로 각각 83.6%, 8.5%,

2) 지역 구분은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서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구분한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구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서부지역에 광시(廣西)와 내이명구(內蒙古) 자치구를 포함시켰음.

7.9%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지역별 투자비중이 각각 89.4%, 8.8%, 1.8%로 나타나, 동부 연해지역에 편중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서부 지역 개발 관련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아서,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월말 현재 우리 기업의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각각 89.6%, 8.7%, 1.7%으로, 동부 지역의 투자비중이 오히려 0.2% 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3> 중국의 업종별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단위: 억 달러

	1997		1998		1999		200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업	6.3	1.4	6.2	1.4	7.1	1.7	6.8	1.7
광업	9.4	2.1	5.8	1.3	5.6	1.4	5.8	1.4
제조업	281.2	62.1	255.6	56.2	226.0	56.1	258.4	63.5
건설업	14.4	3.2	20.6	4.5	9.2	2.3	9.1	2.2
서비스업	141.3	31.2	166.4	36.6	155.3	38.5	127.0	31.2
계	452.6	100	454.6	100	403.2	100	407.1	100

주: 실제 투자금액 기준임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수출 가공형 투자가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 초기에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맞물려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수출 가공형 투자에 안주함으로써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투자진출 전략 모색해야

중국이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한 지 벌써 수년이 됐다. 중국이 서부 지역 대개발을 추진하고, WTO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들은 충분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사전조사는 등한시하고, 조속한 공장가동에만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 따라서 제도와 관행 등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둘째, 생산의 비교우위 확보 차원에서 중국 진출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반드시 현지 시장에서 판매해야 된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완성품, 원·부자재, 부분품의 생산공정 가운데 중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생산공정을 선택·운영하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기술집약적 산업에도 노동집약적 공정이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에도 기술집약적 공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³⁾

셋째,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요망된다.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판로 확보 어려움과 생산대금 미회수 등이다. 따라서 대형 슈퍼마켓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시장 개척 어려움과 외상매출액 증가에 따른 흑자 도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넷째, 중국의 변화된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장려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WTO 가입 후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계상의 인센티브를 축소할 움직임⁴⁾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장려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등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든 여러 가지 이유로 내수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해외시장 확보 차원에서 투자 진출한 기업들이 안정된 수출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나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여섯째, 완성품 시장보다는 먼저 부품·소재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완성품의 소비자는 대부분 중국의 일반 대중인 데 비해

3) 보잉(Boeing)社は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수많은 부품을 자국에서 모두 생산할 수 있으나, 각 공정의 생산비용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후진국간 분업생산체제를 유지 있음.

4) 企人大의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새로운 조세체도의 골격은 ① 기업소득세를 현행 30%에서 25% 수준으로 인하, ② 업종별로 감면 차등 적용, ③ 장려사업에 대한 우대 폭 확대, ④ 이익금의 재투자시의 세금 환급 등의 부분적인 우대제도 폐지, ⑤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인에 새로이 도시 토지 사용세, 건물세, 자동차·선박 사용세, 고정자산 투자방향 조절세 등을 내국기업이나 개인과 동일하게 부과 것 등임.

부품·소재의 소비자는 기업인만큼,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품·소재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익숙하지 않은 상관습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부품·소재 시장 정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성품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일곱째, 중국 전역을 소비시장으로 삼아 투자 진출하는 전략은 재고되어야 한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인데다 광대한 국토로 지역적으로 생활 습관과 양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족간,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소비행태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되 점진적 확산형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소비자를 세분화하지 않은 투자 전략은 초기 투자규모의 확대를 가져와 그만큼 기업의 위험을 가중시키게 된다.

여덟째, 서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중국은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와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부 대개발에 착수하였다.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비교우위 산업 목록'에서 정한 분야에 투자할 경우, 15%의 기업소득세(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세제상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들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외에, 내수시장 진입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된 점과, 서부 지역 진출이 시장선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의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을 과거와 같이 단순히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고, 저급 기술과 설비로 소비시장을 개척하려는 전략은 전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더욱이 중국의 WTO 가입 압박에다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마당에 13억 인구의 우리 배후시장에 대한 관심을 과거 수준에 고착시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발상이다. 지금은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과 전략으로 적극적인 중국 진출을 추진할 때이다.

【金 周 永】